

어린이공원 58곳 새 이름 기대하세요

광산구 공모...244건 접수

초등학생 응모자가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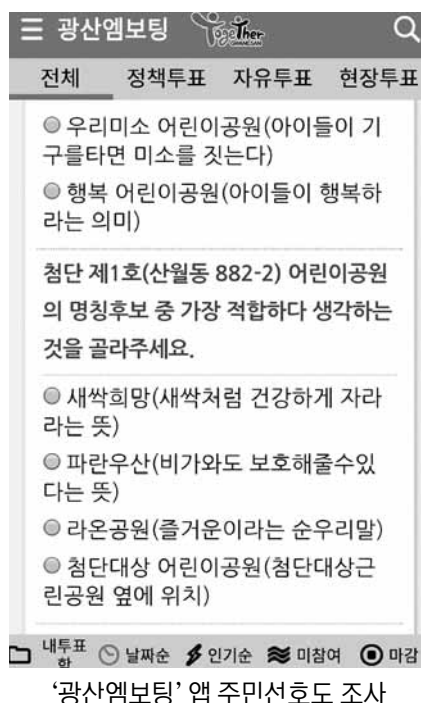
모바일 주민선호도 투표 진행

25일까지 후보 선정...내달 확정

광주 광산구가 행정 명칭으로 불렸던 어린이공원을 주변에 사는 어린이와 주민들이 새로게 지은 재미난 이름으로 바꾸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편이상 동 이름에 숫자로 명칭을 부여해 사용해왔던 어린이공원 이름을 동네 특성에 맞는 참신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그동안 편이상 1호~5호 등의 숫자로 불리워 왔었던 관내 58개 어린이공원 이름을 특색에 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244건의 새로운 이름이 제시됐으나 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12건을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보내 와, 어린이들이 공원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갖는 나타났다.

A(11) 어린이는 하남 제7호 어린이공원의 경우 놀이기구가 코끼리처럼 생긴 것을 감안해 이름을 '코끼리공원'으로 제안했으며, B(여·9)어린이는 우산 10호 어린이공원을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리자는 뜻으로 '소꿉놀이공원'의 이름을 제안했다.

어린이공원 이름을 놓고 초등학생들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워 왔다. 튀 좋은 이름을 내 놓고 있다.

C(43·소촌동)씨는 소촌 제1호 어린이공

원을 힘차고 신나게 뛰어노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발자국 소리가 큰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 밖에 기차길옆 특성을 딴 '칙칙폭폭 어린이공원'과 뽀로로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울랄라 어린이공원',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어린이공원' 등 기발한 이름이 많이 접수 됐다.는 게 광산구 담당자의 귀뜸이다.

광산구는 주민들이 보낸 어린이공원 이름들을 현재 모바일투표 어플리케이션인 '광산엠보팅'과 21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응모작 244건 가운데 독창성과 지역성 및 대중성을 기준으로 오는 25일까지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다음달 지명심의회에서 58개 어린이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현혈로 사랑 실천 조선태병원(병원장 이상홍)은 최근 개원 46주년을 기념하고 혈액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광주시 '환경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

사고 전담팀 운영 등 관리 강화

광주시가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015년 남영전구 수은 유출사고를 비롯해 2016년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문제, 2017년 풍영정천 유류사고 등 해마다 환경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이처럼 광주시는 환경사고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빠른 초기대응과 발생사고의 전담관리, 환경오염물질 취급업체 맞춤형 점검 등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사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환경사고에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환경사고대책본부 편성에 대책반별 역할을 정하고, 신고접수, 사고전파, 초

등조치, 유관기관 방제협업 등 단계별 행동요령과 유해물질, 유류유출, 어류 폐사 등 사고유형별 조치사항을 간결하게 안내했다.

매뉴얼은 관계직원과 방제업체,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항상 소지해 사고 발생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얇은 수첩 형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발생한 환경사고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담관리에 들어간다.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사고는 그 즉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TCE 배출대책 검증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업체의 시설개선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광주시는 유해물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암물질사업장 22곳을 전수 조사했으며, 올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 79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단지역 유해화학물질 유출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억8000만 원을 들여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 채취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가까운 보건소 검사 가능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참진드기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이나 불나물 채취 등 봄철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풀밭에 함부로 눕지 말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 시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진중 감염병조사과장은 "시민들이 야외활동 중 참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는 참진드기 종 분류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즉시 검사하고 있다"며 "만약 참진드기에 물렸는데 열이 나고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광주함 자매결연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목포 해군3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광주시-광주함 자매결연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김치축제, 올해부터 봄·가을 총 4회 열린다

24회째를 맞은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올해는 계절별 특성을 살린 봄·가을 축제로 치러지고, 총 4회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김장철을 앞두고 개최해온 광주세계김치축제와 관련, 김치산업 활성화와 참여형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식품학계, 세계김치연구소, 축제 홍보가 등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계절축제로 확대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기본계획을 지난달 말 수립했다.

축제는 남구 입암동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며, 김치타운과 효천1지구 를 잇는 임시도로가 개설돼 주차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계절별 개최 시기를 보면, ▲첫 번째마당은 '봄&여름 우리집 새김치 담는날'이라는 부제로 5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두 번째마당은 '가을김치와 발효음식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9월 22일부터 이틀간

▲세 번째마당은 '제24회광주세계김치축제' 분행사로 11월 17일부터 3일간 ▲네 번째 마당은 '2017년 사랑나눔 김장대전'으로 김장 시기에 맞춰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린다.

올해도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배추와 김치 부재로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해 구입했다.

광주김치타운을 한국의 김장메카로 만들고 광주김치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김장

예약을 연중 접수한다. 또한, 명품광주김치만마당,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행사 등을 열어 지역 농산물 마케팅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김치축제의 첫 번째 마당인 '봄&여름 우리집 새김치 담는날'은 새우젓을 담그는 '오젓담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새김치 나누, 감사 및 딸기 수확, 김치요리 시식, 불꽃 심어가기 등 무료체험도 즐길 수 있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김치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일터지킴이' 근로기준법 준수 현장 점검


광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일터지킴이'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있는지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시노동센터가 주관하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터지킴이는 지난 2월 모집된 총 10명으로, 3월 노동전문가로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해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12월 광주시노동센터를 설치해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3035명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법 교육, 정책토론회, 심리치료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일반공업지역 토지 8,367㎡ 건물 2,487㎡ 감평가 61억1천1백 ▶ 최저가 42억7천8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평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평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건축 최적할지 감평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2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